

남원시 내년도 외국인계절근로자 수요조사 실시

부족한 농촌일손,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으로 해결한다...최대 8개월까지 고용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내년도 외국 인계절근로자 운영 규모 결정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외국인계절근로자 수요조사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외국인계절근로자는 국내 농촌인력 인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 8개월간을 농·어업 분야에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신청자격은 남원시에 주소 또는 농지를 소유하고 5개월 이상의 상시고용인력이 필요한 농업경영체등록이 된 농가다. 수요 신청 및 문의는 거주지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하면

된다.

특히,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을 고민하는 농가는 서류 위조 입국 등의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내년부터는 재입국 추천을 받은 성실 근로자(4촌이내 재입국 가능)를 제외하고, 신규 인력을 도입할 경우에는 현행 4촌 이내의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방식에서 2촌 이내의 가족으로 축소되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남원시는 부족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2년부터 몽골, 라오스, 필리핀의 지방정부와 MOU체결과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등을 통해 2025년 기준

928명의 계절근로자를 도입 목표로 운영중이다.

남원시 인월면에서 사과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인력난 때문에 한때 농장을 그만둘까 했던 고민에서 벗어나, 올해로 3년차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덕분에 사과상자 하나 들지 않고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는다”며 내년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내년도 남원시 계절근로자 운영 규모 결정해 법무부에 오는 10월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승민 기자

해안 드라이브, 풍광·미식·힐링 한번에!

전라남도 여수 일레븐브릿지·고흥 금산·목포구등대·영광 백수해안도로 제격



전라남도는 청명한 가을 날씨를 만끽할 9월 추천관광지로 해안 드라이브 코스인 여수 일레븐브릿지, 고흥 금산해안경관도로, 해남 목포구등대 해안도로, 영광 백수해안도로 4곳을 선정했다.

여수 일레븐브릿지는 낭도, 백야도 등 11개 섬을 잇는 해상교량으로 현재 7개가 연결됐으며 2027년 8월 완공 예정이다. 여수 돌산과 고흥 영남면을 한 번에 달릴 수 있어 환상적 드라이브 코스로 주목받고 있다.

둔병, 낭도, 적금, 팔영 등 대교 위에서 내려다보는 다도해의 풍경은 장관이다. 먹거리로는 여수 특산품인 군평서니(딱뚱)가 있다. 잔가시가 적어 구이로 먹기에 좋다. 여수시의 야간관광 프로그램인 ‘아쿠아리움과 함께하는 한밤의 산책’에 참여하면 아쿠아리움에서 다양한 해양 생물을 관찰하고 여수 밤바다를 감상하며 산책을 즐길 수 있다.

고흥 거금해안도로는 국토부 ‘남해

안 해안 경관도로 15선’에 선정된 곳으로 풍경이 아름다워 바이크와 자전거 동호회의 필수 여행지로 소문난 곳이다. 국도를 따라 오전쪽으로 달리면 다도해 비경이 펼쳐진다.

중간지점 거금생태숲은 면적 330만㎡에 야생화 군락지, 숲 관찰로, 구름다리 등이 조성됐다.

구름다리에서 바라본 아찔함이 느껴지는 다도해의 비경을 보러 사계절 내내 등산객,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가을철 남해안 대표 먹거리인 전어는 주로 회나 구이로 먹는데 고흥에서는 전어의 비늘을 벗긴 뒤 뼈째로 회를 썰어 내는 ‘빠꼬시’로 먹는다. 씹을수록 깊어지는 고소한 뒷맛이 특징이다.

가을에 더욱 기쁜 전어와 은은한 불향이 섞인 구이 또한 고소함이 일품이다. 녹동항 일원에서는 10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밤바다를 배경으로 드론쇼가 펼쳐진다. 밤하늘을 수놓는 드론쇼를 관람하며 낭만 가득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해남 목포구등대 해안도로는 서해 낙조와 다도해의 드넓은 풍광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으로 에메랄드 바다와 낙조 풍경으로 유명하다. 드라이브 코스의 시작점인 등대는 대한제국 말기인 1908년 축조된 7.2m 높이로 95년간 육지의 관문 역할을 한 역사적 건축물이다.

해남 대표 음식인 떡갈비는 한우 다진 고기에 남도만의 특제 양념이 어우러져 촉촉하고 쫄깃한 식감이 일품이다. 남도의 떡갈비는 문집과 펼침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해남 떡갈비는 펼침 떡갈비다. 고기를 펼쳐 직화로 구워 불맛이 향긋하다.

영광 백수해안도로는 서해의 수려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드라이브 명소다. 해안선을 따라 굽이굽이 이어진 도로는 드넓은 바다를 한눈에 담으며 드라이브를 즐기기에 좋다. 특히 노을이 지는 무렵에는 붉게 물든 하늘과 탁 트인 바다, 갯바위와 기암괴석이 어우러져 절경이 펼쳐진다. 곳곳에 마련된 전망대에서는 서해 낙조를 조망하기에 좋다. 해안선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를 걸으며 여유롭게 경치를 즐길 수 있다.

영광의 대표 별미인 범성포 영광굴비는 해풍에 말려 감칠맛과 고소함이 일품이다. 영광 불갑산은 국내 최대 상사화 군락지다. 이곳에서는 오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10일간 상사화 축제가 열린다.

오미경 과장은 “오감이 만족하는 힐링여행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덕현 기자

남구 ‘수상한 움직임 감지’ 1인 가구 보안 강화

가구·점포 200여곳에 스마트 도어 센서·홈캠 공급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관내 1인 가구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이 홀로 운영하는 점포의 범죄예방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스마트 주거·점포 안전지킴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주거·점포 안전지킴이 사업은 2025년 행정안전부 주관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모델 개발 지원사업 공모 선정으로, 관내 1인 가구와 1인 여성 점포에 스마트 도어 센서 및 CCTV를 보급하는 사업이다.

남구는 사업비 2,050만원을 투입해 이달 중으로 물품을 구매 후 10월부터 관내 17개동에 거주하는 안전 취약계층인 1인 가구와 여성 홀로 운영하는

는 미용실 및 네일샵 등 점포를 포함해 총 200여곳에 해당 기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먼저 각 가정과 점포에는 문 열림 센서와 CCTV 2가지 스마트 기기를 제공한다. 스마트 도어 센서는 현관문의 열림과 닫힌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주거자에게 현 상태를 제공하는 기기로, 스마트폰과 연동돼 언제 어디서나 현관문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문이 열리거나 닫혔을 때 알림을 받을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현관문도 제어할 수 있어 주거지 보안성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가정 및 점포용 CCTV도 비슷한 기능을 제공한다.

실시간 움직임 감지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스마트폰 화면으로 집안 내 움직임을 자유자재로 확인할 수 있으며, 거주자가 외출 또는 집 안에 머무는 상황에서 외부 침입 등 수상한 움직임이 감지되면 휴대전화로 알림 메시지까지 전달한다.

남구 관계자는 “해당 기기 보급으로 위기 대처도 가능해 심리적 불안을 떨칠 수 있고, 실생활 주변 보안성도 강화하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주거 취약계층인 1인 가구를 비롯해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안전하게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근 3년간 방범창과 도어락, 호신용 스프레이, LED 안전호루라기, 송장 지우개 등 다양한 물품을 지원하는 안심 프로젝트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손권일 기자

힐링 명소 ‘실랜드’ 휴식과 치유의 메카로 인기

순창군 인계면에 위치한 ‘실랜드’가 휴양과 치유, 교육이 결합된 복합 힐링 공간으로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실랜드는 숙박이 가능한 본관과 방갈로를 비롯해 식문화 실습이 가능한 쉼스튜디오, 명상관, 율향기정원, 찜질방과 교육장을 갖춘 건강휴양 체험시설 등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새롭게 준공한 위케이션 센터는 공유오피스와 팀오피스를 갖추고 있어 일과 쉼을 동시에 누리는 힐링형 위케이션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체계적인 시설 운영 성과는 방문객 수치로도 확인된다.

올해 8월 기준으로 방갈로 이용객이 2,430명, 치유연수 교육생이 2,471명에

달하는 등 명실상부한 힐링 1번지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실랜드를 거점으로 운영하는 휴-메디푸드 힐링 교육 프로그램은 올해만 1,600명이 넘는 교육생이 참여했으며, 만족도가 98%를 기록하는 등 전국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실랜드 프로그램은 편백성 명상, 아로마 테라피, 치유음식 체험 등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는 특별한 힐링 경험을 선사하며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실랜드의 우수성은 공식적으로도 인정받았다. 2021년 전라북도 유니크베뉴로 선정된 데 이어, 2024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

국관광공사가 주관 대한민국 우수 웰니스 관광지에 이름을 올리며 전복을 대표하는 휴양·치유 명소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순창의 청정한 자연환경과 전통 발효 식문화라는 독특한 자원이 실랜드만의 차별화된 힐링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혁신적인 치유·웰니스 콘텐츠를 통해 실랜드를 대한민국 최고의 힐링 명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창군 육천장학회(이사장 최영일 군수)가 관내 중고등학교 85명에게 총 5,476만원의 장학금을 3개 분야로 나누어 지급했다고 밝혔다.

신승민 기자

장수트레일레이스 100마일 코스 현장점검

장수군 남덕유산 ‘토옥동~월성재’ 신규 탐방로 포함

최종시 장수군수는 제6회 장수 트레일레이스에서 첫 선을 보이는 100마일 (173km) 메인 코스에 포함되는 남덕유산 ‘토옥동~월성재’ 신규 탐방로 구간을 현장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9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열리는 제6회 대회를 앞두고 국내 최초이자 최장의 코스로 주목받는 100마일 구간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 대비 차원에서 이뤄졌다. 현장에서 최 군수는 관광산업과, 산림과 등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100마일 코스 조성 및 운영 준비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신규 탐방로 구간을 직접 걸으며 노면 상태, 응급대응 체계 등 선수들의 안전 확보와 운영 준비 상황을 꼼꼼히 확인했다.



최 군수는 “트레일레이스 대회 참가자들이 장수의 자연을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점검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다. 장수군은 대회 전까지 지속적인 코스 정비와 안전 장비 보강을 이어가며 각 구간의 위험 요인을 사전

에 제거해 계획이다.

이번 대회는 락앤락(대표 김영록)이 주관하며, 장수종합경기장에서 출발해 관광지와 산길, 마을을 잇는 비포장 코스를 달리는 트레일런 형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참가 신청자는 8월 기준 2,300여 명이며 이 중 100마일 코스에는 130

여 명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참가자들은 20km, 38K-J, 38K-P, 100km, 100마일 코스 중 하나를 선택해 달린다. 완주자 전원은 기념 타올과 메달을 받고, 100마일·100km 완주자는 피니시 자켓도 수여된다.

김서주 기자

일본 시장 ‘프리미엄 고흥 쌀’ 수출 본격화



고흥군이 일본 현지에서 핵심 수출 품목인 고흥 쌀의 브랜드 가치와 품질을 성공적으로 알리며 프리미엄 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최근 일부 저가 수출로 한국 쌀의 브랜드 가치 하락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고흥군은 수익성 있는 가격으로 수출을 추진하는 차별화 전략을 제시했다. 이는 농가 소득을 보장하고 품질과 신뢰를 지켜 한국 쌀의 프리미엄 가치를 공고히 하려는 의지다.

고흥군과 흥양농협은 9월 4일 일본의 유력 기업 (주)간코쿠 노리 재팬

(KANKOKU NORI JAPAN Co., Ltd.)과 상호 협력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은 고흥 쌀을 주력으로 향후 3년간 고흥군의 다양한 농수산물들 총 200만 달러 규모로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안정적인 해외 판로 확보의 전기 가 될 전망이다.

조성문 흥양농협 조합장은 “고흥 쌀의 품질과 브랜드 신뢰도를 일본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주)간코쿠 노리 재팬 대표는 “현지 유통망과 소비자 반응이 기대 이상

으로 긍정적이어서 향후 고흥 쌀 수입 확대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영민 고흥군수는 “이번 협약과 홍보를 통해 고흥 쌀이 프리미엄 브랜드로 확고히 자리매김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약 상대사인 (주)간코쿠 노리 재팬은 연 매출 345억 원 규모의 글로벌 기업으로, 일본의 대표적 소평물 둔키호텔과 GC Japan을 포함해 10개국 2만여 개소에 납품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 폭넓은 유통망을 갖췄다. 이번 협력이 고흥 쌀의 안정적 수출과 판매 확대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쿄 신주쿠 한국 유통매장에서 고흥 쌀 500g 증정 행사를 진행했다.

소비자들은 “쌀알이 찰기 있고 맛있었다”, “일본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품질이다”고 평가했다. 군은 고흥 쌀을 판매하는 일본 현지 슈퍼마켓을 방문해 쌀 진열 상태와 판매 동향을 점검하고 소비자 반응을 직접 확인했다. 이어 인근 음식점에서 고흥 쌀로 지은 비빔밥과 김밥으로 점심 식사를 하며 조리 활용성과 맛을 체험했다.

우덕현 기자

농기계임대사업소, 수확철 토요일 근무 시작해

고창군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본격적인 가을 수확철을 맞아 농업인들의 일손 부족을 줄이고 적기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토요일 운영을 시작한다.

운영기간은 9월부터 11월까지이며,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운영장소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고창읍), 서부권(해리면), 남부권(대산면), 북부권(흥덕면) 등 4개소로, 전담인력 19명이 투입돼 농기계임대와 배송서비스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수확철에는 농기계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사전예약제를 활용하면 원활한 이용이 가능하다.

사전예약는 사용일 기준 14일 전부터 인터넷,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

며, 예약한 농기계는 사용 전날 오후 4시부터 출고반야 바로 농작업에 활용할 수 있다.

현재 고창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총 98종 1,115대의 다양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만 총 7,442건의 농기계를 지원하였다.

또한, 농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중인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정책은 오는 12월까지 계속된다.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바쁜 수확철 농업인들이 농기계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정비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농촌 인력난 해소와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재)고창식품산업연구원이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블랙라즈베리추출물의 공동 활용 및 기능성식품 산업 발전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블랙라즈베리추출물은 고창군과 (재)고창식품산업연구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이 다년간 협력해 개발한 기능성 원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개별인정형 원료(‘혈압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인정번호 제2022-10호)로 인정받았다. 협약은 블랙라즈베리추출물을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활용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유지·관리 및 신제품 개발을 공동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영민 기자